



## 호랑이들 “마음은 벌써 시즌”

7일 KIA 한승혁(오른쪽)과 윤정우가 체력테스트에 대비해 챔피언스필드 외야를 달리고 있다.

“실 수가 없다”는 선수들로 챔피언스 필드는 이미 시즌이다.

찬바람이 불어닥친 7일 챔피언스필드는 훈련 열기로 뜨거웠다. 달리고, 던지고, 치고, 그라운드에도 웨이트장에도 실내연습장에도 선수들이 있었다.

‘92동기’들부터 올해로 15년차가 되는 베테랑 김민우까지 나이를 잊은 훈련. 광주가 고향인 선수들은 물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김광수, 이흥구, 전현태, 김준 등도 경기장을 분주하게 누볐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신랑 김주형까지 등장을 하면서 경기장 분위기는 이미 시즌이었다.

밤은 표정 뒤에 비장함이 보이기도 한 이들의 속마음은 “실 수가 없다”이다. 기적의 시즌을 꿈꾸고 있는 천안 출신의 투수 박동민은 “고향집에서는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다.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 포수 이흥구도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올 시즌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된다. 그나마 경기장에 나와서 훈련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언급했다.

챔피언스필드 훈련 열기 고조

“올 시즌은 다르다” 기대감 반

체력테스트 앞두고 긴장감 반

선수들의 발걸음 경기장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 2016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흑시나 하는 긴장감이 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1차 관문인 체력테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20%’와 ‘4km’다. 체력테스트날 오전에는 선수들이 체지방률을 측정하게 된다. 20대 선수들의 기준은 20%다. 비시즌 기간 가족,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몸무게가 늘어난 이들이 많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선수들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체지방률을 조절하고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장거리 러닝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4km를 달려야 하는 필드 테스트도 걱정이다. 지난해 감기 몸살과 교통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25세 이하 19분, 25-29세 20분, 30세 이상 23분 등 주어진 시간 안에 선수들 대부분이 결승선을



실내연습장(왼쪽)과 웨이트장에서 2016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자율훈련이 진행됐다.

통과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생각보다 뛰는 게 쉽지 않다”며 다시 찾아온 체력테스트를 앞두고 각정을 하고 있다.

투수조에서 손에 짚는 러닝맨 한승혁과 발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외야수 윤정우도 이날 오후 러닝에 공을 들이며 챔피언스필드 외야를 실재없이 달렸다.

남다른 각오로 13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도 있다. 지난해 탈락생이 된 투수 김진우가 ‘이번에는 다르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김진우는 감기 몸살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주어진 기록을 통과하지 못했다. 완주도 하지 못하면서 김기태 감독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결국 김진



우는 1군 캠프가 꾸려진 일본 오키나와가 아니라 2군 캠프가 마련된 대만으로 향해야 했다.

날렵해진 얼굴로 땀을 흘린 김진우는 “이번에는 자신 있다. 체중 관리도 하고 있고 컨디션은 좋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그런데 이번에도 1군 캠프는 가지

못한다”고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김진우는 지난해 7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아직 재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추위도, 달콤한 휴식의 유혹도 막지 못한 선수들의 발걸음. 2016시즌이 기지개를 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박병호

## “박병호 스타일’ 유지…장타력 끌어 올린다”

미네소타 입단 후 국내서 첫 회견

김현수와 개막전 맞대결 기대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한 ‘한국 홈런왕’ 박병호(30)가 국내에서 처음 소감을 밝혔다.

박병호는 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네소타에 입단한 박병호입니다”라고 운을 뗀 박병호는 “미네소타와 계약을 하고서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은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맞대결이다. 특히 박병호는 2016시즌 메이저리그가 개막전부터 한국인 타자 맞대결을 펼친다.

미네소타는 4월 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개

막전을 치른다. 볼티모어에는 한국프로야구가 낳은 타격기적 김현수(28)가 있다.

박병호는 “김현수와 메이저리그에서 만나는 걸 기분 좋게 생각한다. 같이 한국에서 뛰다가 미국에서 뛰는 것도 재밌다”며 “한국 선수와 서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를 할 것 같다. 좋은 대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호가 국내 취재진 앞에서 포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한 박병호는 지난해 12월 2일 미네소타와 4년 보장 1200만 달러, 5년 최대 1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12월 3일 미네소타 홈구장 타깃필드를 찾아 입단식 가진 박병호는 조용히 귀국했고, 연말 국내프로야구 행사에서도 말을 아꼈다. 공식 석상에 선 박병호는 함께 빅리그 무대를 누빌 한국 선수와 대결을 기대했다.

또 박병호는 “홈 구장에 적응해서 장타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호가 홈 구장으로 쓸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는 홈 플레이트에서 중앙 펜스까지 거리가 125m, 왼쪽 펜스까지 103m, 오른쪽 펜스까지 100m인 비대칭 구장이다. 좌중간 펜스까지는 115m, 우중간 펜스까지 거리는 111m다.

박병호는 “야구장이 확실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왼쪽 외야 펜스까지의 길이와 중앙 펜스 길이는 잠실과 비슷한 것 같다”며 “좌중간과 우중간은 잠실처럼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이어져서 잠실보다는 조금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타격 훈련을 해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훈련하면서 장타를 끌어올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김현수, 볼티모어 1번타자 겸 좌익수” 현지 언론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데뷔 첫해 팀의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뛸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일간신문 USA투데이는 7일 볼티모어의 2016시즌을 전망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예상 선발 라인업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메이저리그 신인인 김현수를 1번 타자 좌익수로 올려놓았다. 이어 지난해 팀의 톱타자로 활약한 3루수 매니 마차도를 주축해야 할 선수로 꼽으며 김현수

와 데이브 세터진을 구성하리라고 내다봤다. 김현수에게는 데뷔 첫해 리드오프라는 중책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지 관계자들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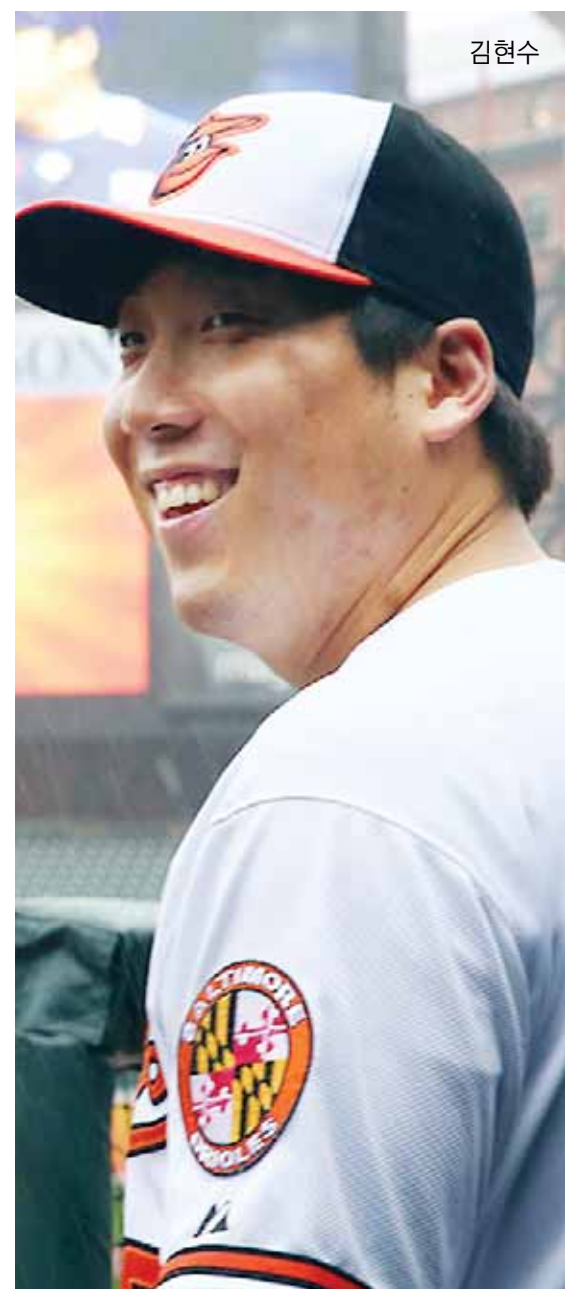
USA투데이는 “강정호(피츠버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김현수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현수는 볼티모어의 단점인 왼손 타자와 출루율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수가 지난해 KBO리그에서 출루율 0.438을 기록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볼티모어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뛰어난 외야수와 계약하지 않는다면 김현수가 주전 좌익수로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USA투데이의 예상 라인업은 현재까지 이뤄진 선수 영입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티모어는 FA인 파워히터 1루수 크리스 데이비스와 아직 계약하지 못했다. FA시장에서는 저스틴 엠펜,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같은 대형 외야수들의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현수